

추상클래스는 말그대로 클래스이고, **interface**는 구현하기 전에 메소드에 대해 명세된 것일까?
그래서 상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클래스에선 상속이라고 쓰지만 interface는 implements(구현) 이라고 쓴다.

추상클래스의 정의는 **abstract 메소드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클래스**를 일컫는다.
때문에 일부는 구현된 메소드도 있고, **abstract**라고 붙어있는 메소드는 구현이 안되어있다.

추상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메소드를 구현해야한다.
그래서 필수적으로 구현해야할 메소드가 있을 때 추상클래스를 쓰게된다.

인터페이스는 구현체 없이, 메소드에 대한 명세만 되어있다. **모든**
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를 다 구현해야한다.

자바는 단일상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추상클래스는 단일상속이지만,
interface를 사용하게 되면, implements를 구현하는 부분에서 extends 또한 사용할 수 있다.
즉, **다중상속이 가능**해진다.

'이러이러한 메소드를 쓸 것이다.' 인터페이스에 선언을 해놓고, 가져다가 반드시 선언된 그대로 모두 구현하면 되는게 **인터페이스**
이고,

이러이러한 메소드가 있지만 가져다 쓰거나 오버라이드 하거나, **abstract**가 붙은 메소드는 반드시 구현하면 되는게 **abstract class**
이다.
이런 편이 더 나은 거라는 건 2가지 제약을 쓸 수 있음.